

나주시, 이창지구 행복주택 본격 착공

전용면적 21~44㎡ 총 150세대 공급 ... 오는 2022년 5월 준공 청년·저소득층·산단 근로자 등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나주 이창지구 행복주택이 첫 삽을 떴다.

나주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이창지구 행복주택'이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착공에 들어갔

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에 따른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한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혁신·일반산업단지 배후 지역인 영산포 이창동 일대에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공동시행사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행복주택사업 시행협약' 체결에 이어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올해 4월 공사 발주와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이달 착공했다.

사업비 150억원(국비30%, 기금용자40%, LH30%)이 투입되는 행복주택은 영산포 이창동 714-1번지

7199㎡(2178평)에 세대 당 전용면적 21~44㎡, 총 150세대를 주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한다.

시는 앞서 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무상제공을 비롯해 주택부지 주변 환경개선, 대중교통 체계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LH는 국비 및 기금, 자체예산을 투입해 주택 시공과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박봉순 나주시장은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침체된 영산포권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 석주관칠의사 추모 제례 봉행

의병도시 구례군은 지난 10월 31일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한 석주관칠의사 사당에서 유림과 후손들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칠의대대장,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의사를 추모하는 제례를 봉행했다.

이날 제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례를 집행하는 헌관을 비롯한 집사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례를 봉행하였다.

추현관인 유시문 구례군의회의장이 예찬을 살피는 점시, 강신례, 첫 술잔을 헌작하는 초헌례로 시작하여 아헌관이 두 번째 술잔을 헌작하는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봉행했다.

석주관은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잇는 영남과 호남 사이의 4대 관문의 하나로 호남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군사전략상 요충지로 고려때부터 이곳에 진영

이 설치되어 왜군의 침략을 막아왔다. 임진왜란 직후엔 호남의 안전방어를 위하여 성을 쌓았다.

정유재란 당시 수만명의 왜적이 들이닥치자 구례의 선비 왕득인을 비롯한 구례출신 7의사가 수백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승병 153명의 지원을 받아 길목을 차단하고 기습과 백병전으로 여러 차례의 전공을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인 1598(선조31)년 하동으로부터 쳐들어온 큰 무리의 왜병들과 결사적으로 대항하나 왕의성을 제외한 모든 의병들이 전사하였다.

순4년(1804) 나라에서 7인의 의사에게 각각 관직이 내려졌고 1946년 지역의 유지들에 의해 칠의각과 영묘정을 지어 의사들의 공훈을 추모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차 안에서 만나는 담양' 농가형 가공식품 승차구매 행사

오는 7일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서 개최

담양군이 올해 코로나19와 재난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오는 7~8일 이틀간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농가형 가공식품 승차구매 행사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 판매 부스를 설치하여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의 가공식품들을 한데 모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대숲맑은 쌀과 고구마도 함께 판매한다.

소비자는 홍보용전판지에 실린 상품들을 사전예약하여 행사당일 담양군 농업인이 직접 만든 가공 식품을 눈으로 확인 후 차량에 탄 채로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담양특산품을

증정하며, 사전예약 주문시에는 마스크 스트랩도 증정한다. 사전예약은 11월 6일까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승차구매 방식의 판촉홍보행사인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자칫만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객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사교계 평정할 파티플래너 양성 중"



곡성군이 전라남도로부터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티플래너 양성과정, 카페 메뉴 개발, 프리저브드 플라워, 수제맥주 만들기 등 다양한 특성과 프로그램을 진

행 중에 있다. 그 중 파티플래너 양성과정은 다양한 사교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자격 취득과정으로 곡성군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트랜

디한 평생교육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파티 기본이론과 기획력 강화 등 이론을 비롯해 테이블 연출, 포토존 꾸미기, 파티플로리스트, 케이터링, 시즌파티 연출 등 다양한 실습을 혼

전남도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카페 메뉴 개발·프리저브드 플라워·수제맥주 만들기 등 다양

합해 운영 중이다. 강의는 (사)한국 파티이벤트협회에서 전문강사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주중 야간과 주말에 강기가 운영됨에도 학습자들의 의지와 열정이

가득해 야간강좌로는 보기 드문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곡성군은 학습자들의 자격증 취득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파티플래너 양성과정의 대미를 장식할 종강파티를 11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종강파티에서는 코로나에 지친 지역민들

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리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군, SNS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총 71편 접수... '명품 화순 속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대상

화순군이 '화순 사는 자부심'을 주제로 개최한 SNS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순의 매력을 알리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 확보해 군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8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71편이 접수됐다.

군은 1차 예심과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주제 적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파급력 등을 심사해 최종 수상작 12편을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은 '명품 화

순 속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이다. 화순의 다양한 풍경을 계절별로 담아낸 영상미와 구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특별상 5편에 램, 스케치,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화순의 매력을 표현한 작품들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각 1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특별상 각 2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